

Yeosu Web Contents

2023년 12월 01일 06시 12분



목차

목차	2
여수한뉴스 - 전체	3
여수시, 에이치앤지케미칼(주)와 7200억 규모 투자 협약 체결	3

여수시, 에이치앤지케미칼(주)와 7200억 규모 투자 협약 체결

2023.09.04 조회수 382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담당자 선정진 연락처 061-659-3382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에이치앤지케미칼(주)와 7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에이치앤지케미칼(주) 임상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동부청사 개청식과 함께 열렸다.

협약은 에이치앤지케미칼(주)는 국가산단 내 연간 30만 톤 규모의 EVA생산 시설 준공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7,200억 원을 투입하고, 시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치앤지케미칼(주)는 한화솔루션과 GS에너지의 합작사로, 피복이나 전선 등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용 시트 핵심소재인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VA(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를 생산하는 업체다.

현재, 전 세계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제품 수요는 연간 460만 톤 이상으로 매년 9%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생산시설 투자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에이치앤지케미칼(주) 임상일 대표는 “이번 투자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화솔루션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소재 생산 역량과 GS에너지의 자회사인 GS칼텍스의 경쟁력 있는 원료를 활용해 세계적인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제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에이치앤지케미칼(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 여수시 에이치앤지케미칼(주)와 7200억 규모 투자 협약 체결.jpg (127 hit/
366.3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 정기명 여수시장, 시구행사에서 관광홍보와 여수...

다음글

여수시립도서관, 제18회 '독서의 달' 행사 개최 >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